



인도 뱅갈루루는 제2의 중관촌이 될 수 있을까?



인도 ICT 산업의 상징이자 바로미터는 뱅갈루루(구 방갈로르)이다. 중국의 중관촌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실리콘 벨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한 글로벌 하청기지로 머무를지는 인도 산업계와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것은 엄청난 잠재력이다.

이현우 단국대학교 국제학부 모바일시스템 전공 부교수

중국 ICT 산업의 성장이 눈부시다. 인프라 분야의 화웨이는 종래의 가격 경쟁력에 이제는 품질 경쟁력까지 확보하여 선두 에릭슨을 위협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샤오미는 선발 레노보를 따돌리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 TOP 3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신중한 견해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높아지는 인건비, 경쟁의 격화에 따른 이익률의 저하, 국내시장 보호 정책의 한계, 혁신노력의 미흡 등으로 지속적인 중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서서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인도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

중국에 버금가는 많은 인구, 아직 저렴한 인건비, 충분한 잠재 수요, 영어 통용의 장점, 수학 등 탄탄한 기초학문 기반 등 여러 가지 잠재적인 경쟁력 요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아직은 잠자는 거인에 머물러 왔다. 그러면 앞으로 인도는 중국에 이어 신흥 ICT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ICT 성장 배경 중 하나로는 중국판 실리콘 벨리로 불리우는 북경의 중관촌을 들 수 있다. 청화대, 북경대 등의 우수한 인재 공급, 해외 ICT 벤처 캐피탈들의 집중 투자, 정부의 해외거주 중국인력에 대한 귀국 인센티브 정책, 많은 비즈니스 기회 등으로 중관촌은 실리콘 벨리 못지않은 기술개발과 창업의 메카가 되어 왔다. 그러나 임금의 급상승

특히 직종별, 지역별 임금의 큰 격차는 지속적인 성장동력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북경, 상해, 광주 등 동부 대도시의 인당 GDP는 한국에 육박하고 있고, 직종별로는 인터넷 산업, 모바일 산업 등의 인건비는 타 전통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아서 산업의 균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행보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당장은 베트남으로의 이전이 대세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도가 주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도 ICT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인도판 실리콘 벨리로 불리는 뱅갈루루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미 해외 SW 대기업들은 일찌감치 인도에 등지를 틀었고, 글로벌 아웃 소싱 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산업의 덩치에 비해서는 질적으로는 인도는 세계 ICT 산업에서의 존재감은 약했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의 아웃 소싱 기지로 주로 활용되다 보니 변변한 로컬 제조업체가 없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동 통신사업자도 최근에는 다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그동안은 지역별로 분리된 사업권 위주로 존재하다 보니 nation wide 사업의 운영이 어려웠다.

중국의 China Mobile의 세계 최대 이동통신업자 위상을 굳힌 지 오래인데 비해 인도의 Barti Airtel이나



Reliance Mobile의 위상은 아직은 미약한 것이 그 사례이다.

그러면 두 나라가 보여준 서로 다른 행보의 차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중국은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활용하여 강력한 산업정책을 실시한 반면 인도는 주 단위의 분권적 체제에 기반한 소극적 정책 위주로 대응해 왔다고 보여진다. 한편 중국은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많은 외국 기업들의 합작을 성사시켰다. 반면에 인도는 자국 자본을 바탕으로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을 추진해 왔다.

중국은 높은 교육열과 단일 언어정책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견고한 노동시장을 확보해 온 반면 인도는 지역별로 언어는 다르지만 공용어인 영어를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익숙한 이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 새로 출범한 인도의 Modi 총리 정권은 보다 실용적이고 국제적인 전략을 채택하여 여러 가지 해외 러브콜을 받고 있다.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잠재적인 경쟁국인 중국으로부터도 협력 요청의 메시지를 받고 있으며 이런 배경에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 대응하고 고립 경제보다는 글로벌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정책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의 Modi 총리의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넓은 국토, 많은 인구, 높은 젊은층 비율, 낮은 산업

제품 보급률 등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시장 성장성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국가 중에서도 가장 주목 받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최근의 특기할 만한 사실 중의 하나는 인도에서도 표준화 기구인 TSDSI(Telecommunication Standard Development Society of India)를 설립하여 당당히 3GPP의 정식 SDO(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가 된 것이다. ETSI, TTA, ATIS, CCSA, ARIB/TTC 등이 20여 년간 주도해온 이동통신 국제표준화에 드디어 인도가 자체적 표준화 기구를 가지고 참여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직은 글로벌한 제조업체나 사업자가 없는 상태라 당분간은 큰 목소리를 낼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부상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인도 ICT 산업의 상징이자 바로미터는 벵갈루루이다. 중국의 중관촌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실리콘 밸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한 글로벌 하청 기지로 머무를지는 인도 산업계와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것은 엄청난 잠재력이다. 인도 ICT 시장이 급성장하면 인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업 기회 또한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지켜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 **TTA**